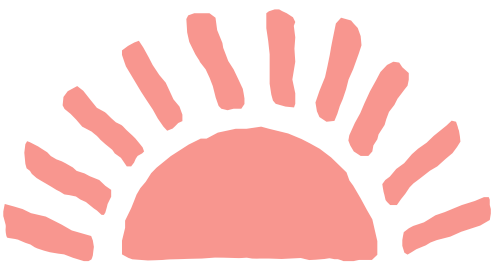
2021 제주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의 재구성
사업보고서

돌봄의
재구성

질문,





재구성,

그리고 미래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JEJU SOCIAL ECONOMY CENTER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2021 제주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의 재구성
사업보고서

질문,
재구성,
그리고 미래

목차

Ⅰ. 돌봄의 이유 – 사업배경과 목적 소개

1. 새로운 돌봄이 필요한 이유 05
2. 돌봄과 만난 사회적 경제 07

Ⅱ. 제주의 돌봄

1. 농사는 자기돌봄이 될 수 있을까? 12
(주)짓다

2. 사회서비스 접근성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17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

3.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21
(주)책여우

4. 사회적 협력으로 먹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25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부록 [돌봄의 재구성 오픈 포럼] 29

Ⅲ. 돌봄의 재구성

1. 청년들의 적극적 상호돌봄 38
(주)짓다

2.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망 43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

3.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또똣한 동네’ 47
(주)책여우

4. 협력을 통한 먹거리 돌봄 51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부록 [돌봄의 재구성 2차 오픈 포럼] 55

Ⅳ. 돌봄의 미래

1. 함께, 서로 기대어 돌보는 실천 62
(주)짓다

2. 보다 가깝게, 보다 자유롭게 64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

3. 또똣한 동네, 또똣한 돌봄 66
(주)책여우

4. 새로운 협력, 그리고 새로운 미래 68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5.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한 제언 70

Ⅰ. 돌봄의 이유

사업배경과

목적 소개

1. 새로운 돌봄이 필요한 이유

1) 돌봄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홀로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독립적인 삶을 꾸릴 것 같은 성인조차도 질병과 사고의 위협 앞에선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비단 장애 등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유아(乳兒)에서 노인(老人)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인간에게 있어 '돌봄'이란 물질적·정신적·신체적 의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상호의존'적이기에 인간은 자신의 이해에 대해서 만큼이나 타인의 욕구와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적-사적, 공식-비공식, 유급-무급의 차원을 넘어 돌봄으로 연결되고자 합니다.

돌봄(care) 연구자인 조안 트론토*Joan C. Tronto*는 돌봄을 "가능한 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바로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種)의 활동"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돌봄이 향하는 세상이란 "우리의 몸, 자아, 그리고 환경"과 더불어 "생명유지의 그물망으로 엮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1)]

그렇게 돌봄은 단순히 서로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계산적·거래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과 세계를 변화하고 조직하는 윤리적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타인과 연결되어 함께 돌보는 상호의존적 행위로써 돌봄은 우리에게 냉혹한 경쟁사회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는 대안적인 사회라는 전망을 제시해줍니다.

우리가 돌봄을 일종의 "일자리 창출 또는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새로운 성장전략의 수단"이 아닌 "새로운 철학과 인간관을 바탕으로 새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자 "사회를 재편하는 방법"으로 성찰해야 하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2)]

2) 돌봄과 제주

한국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논의가 관심을 받게 된 시기는 사회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평생직장의 신화가 해체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위기에 사회보장성의 여러 취약한 지점이 사회지표 등으로 나타난 것이 그 예인데요. 전통적으로 돌봄

1 조안 C. 트론토. 돌봄 민주주의. 서울:박영사, 2021.

2 마경희 (2010). 돌봄의 정치적 윤리. 한국사회정책, 17(3), 319-348.

을 책임져야 했던 '가족의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됨에 따라 기존의 돌봄에 대한 성찰과 다른 방식의 돌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등의 정책은 공적 돌봄의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실업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과 더불어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경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21~2025) 돌봄 정책

구분	주요 내용
강화된 공보육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 2025년까지 50% 달성
온종일 돌봄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돌봄 지속확충
초등교육 혁신	놀이, 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학습지원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	출생통보제 도입, 학대 아동 가정방문 의무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통한 통합돌봄	고령자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전국 확산, 방문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활성화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돌봄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 돌봄	1인가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및 지역사회기반 일상돌봄 지원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및 요금체계 개편 추진
	재난·재해 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지역기반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
돌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남성돌봄자 지원, 롤모델 확산 등 성평등 돌봄 정착
	지역주민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돌봄, 휴식공간 등 마련

2017년 1만 여 건이었던 돌봄 관련 기사는 2018년에는 1만 5천 여 건과 2019년 2만 여건을 넘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3만 7천 여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0년 돌봄 기사 중 1,000건의 연관 단어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24.62%), 사각지대(18.62%), 노인맞춤(14.14%) 순으로 특정 단어를 추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각종 사회서비스들이 축소·비대면화됨에 따라 맞벌이에 의한 양육공백과 노인 돌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경우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과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일상에서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고립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코로나19 등 경제 악화로 이러한 은둔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지적하며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과 더불어 경제 위기로 다니던 직장에서도 배제되어 은둔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실태파악조차 쉽지 않지만 고립된 이들에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2. 돌봄과 만난 사회적 경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로 함께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돌봄은 사회를 유지·안정시키며 동시에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의 집합이나 계약'이라는 의미에서의 거래적인 관계보다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망'이 보다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구성원간의, 지역 이웃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회적 경제와 돌봄은 상호 공명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함께 준비한 「돌봄의 재구성」은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제주의 사회적 경제기업은 약 500여개로 그 중, 사회복지, 교육, 간병가사지원, 청소, 방역, 보건, 문화예술 분야는 40% 이상으로 추정되며 기존 전통적인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이외에도 새로운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할 잠재력이 높다고 여겨지는데요. 「돌봄의 재구성」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돌봄'을 새롭게 정의하고,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만들고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지원하는 곳으로, 현장 기반의 탐구를 통해 지역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제주생활탐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재구성' 사업을 '제주생활탐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 사회적경제분야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함에 앞서 현장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업들이 각자의 현장을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듯 「돌봄의 재구성」은 지역사회에 대한 탐구와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을 연결하는 소중한 첫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제주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 개발 프로젝트 「돌봄의 재구성」 사업 소개

사업목적

①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내 다양한 방식의 돌봄 필요성 탐구합니다.

② 제주지역의 새로운 돌봄 서비스의 시범모델을 개발합니다.

③ 향후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정책 및 사업화 기반 마련합니다.

모집대상 및 자격

제주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되는 제주도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예비포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과 최근 2년 이내('19-'20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및 지원내용

1단계 제주 생활 탐구

주관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지원내용 탐구활동비 (최대 500만원)

활동사항

① 돌봄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돌봄의 필요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함

② 주제와 관련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한 문헌조사, 현장방문, 인터뷰 등의 리서치 활동을 진행함

③ 분야별 전문가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함

④ 탐구 활동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사업화 추진 계획서 및 정산서를 제출함

2단계 현장중심 사업화 모델제안

주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내용 사업화 모델제안 사업비(1,000만원)
: 참여팀별 사업내용에 따른 모델제안 현장 연구 과업 수행 용역계약 체결

사업모델 언론홍보 및 컨텐츠 제작 지원

활동사항

① 1단계 제주생활탐구를 통해 제안된 가설(계획)의 실행 시범사업 추진함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비, 교육훈련비, 연구자 인건비, 운영비 등)

② 서비스 수행, 수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1회)를 개최함

③ 사례 확산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된 온·오프라인 결과물을 제작 및 제출함

④ 사업화 모델제안 최종 완료보고서 및 정산함

사업진행 절차

공고 및 선정 (공동진행)	사업 공고 및 선정 (4개팀)
1단계 제주생활 탐구 (제주시 소통협력 센터)	① 제주생활탐구 활동 • 오리엔테이션(1회). 중간점검(1회) • 돌봄 필요성 및 사업 타당성 도출을 위한 탐구 (학습, 자료수집, 인터뷰, 간담회, 문헌연구 등)
	② 결과 공유 및 시범사업 구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
2단계 현장중심 사업화 모델제안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① 현장중심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 • 1단계 제주생활탐구를 통해 제안된 계획의 실행 • 사업개발 및 수행사업, 홍보마케팅, 교육훈련 등
	② 팀별 내부 서비스 평가 간담회(1회)
	③ 사례 확산을 위한 온프라인 자료 제작
성과확산 (공동진행)	공론화 포럼 및 기획홍보
	사업평가

Ⅱ. 제주의 돌봄

탐구결과

재구성

제주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 개발 프로젝트 「돌봄의 재구성」 사업에는 총 4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농업과 청년, 장애와 사회서비스, 마을과 아이, 저소득 취약계층과 먹거리 등 여러 분야의 고민과 '돌봄'을 연결하는 작업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전개되었습니다.

「돌봄의 재구성」 1단계에서는 각 기업이 생각하는 '돌봄'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고,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심층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Ⅱ. 제주의 돌봄'은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출한 '돌봄의 재구성 탐구결과'를 재구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짓다

'짓다'는 제주시 평대리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지역 살이·로컬 살이를 위한 베이스캠프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5년차 청년공동체입니다.

친환경 작물 경작 및 유통(소농로드), 농경문화를 나누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소농의 공부, 모두의 텃밭), 지역 인문학(칸트의 식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짓다 SNS

1. 농사는 자기돌봄이 될 수 있을까?

1) '짓다'가 생각하는 '돌봄'

○ '짓다'의 질문: 청년들에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자기돌봄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짓다'는 돌봄을 재구성하기 위해 농사의 사회적 기능을 새롭게 탐구하였습니다. 농사에서 자기돌봄의 가능성을 찾고, 사회적 농장의 가능성을 모색모색한 것입니다.

2) '짓다'의 탐구

○ '짓다'가 선택한 방법과 만난 사람들

짓다는 "농사는 자기돌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짓다'가 선택한 방법

구분	자료명/대상자명	선택이유 (확인하고자 한 지점)
자문	커뮤니티다 고00 대표	커뮤니티 기반, 문제정의, 혁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오00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연구위원	청년들의 자기돌봄 역시 돌봄 영역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수확페스티벌	도내 청년 20명	농사에 대한 니즈(needs) 및 농사를 통해 청년들이 얻고자 하는 바를 확인하고자 함
프로그램개발	자체개발	프로그램 모델링 및 적용대상 확인을 위함
설문조사	자체조사 및 센터 협력	대상의 니즈(needs) 매칭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

• '짓다'가 만난 사람들

이름	소속	논의내용
고00	커뮤니티다 대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비즈니스모델 분리 접근 필요
한00	담을밭 대표	협력 자문
부00	동트락협동조합	협력 자문
김00	위험한스튜디오	협력 자문
서00	60대 귀촌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노00	60대 귀촌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김00	30대 직장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이00	30대 직장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채00	20대 직장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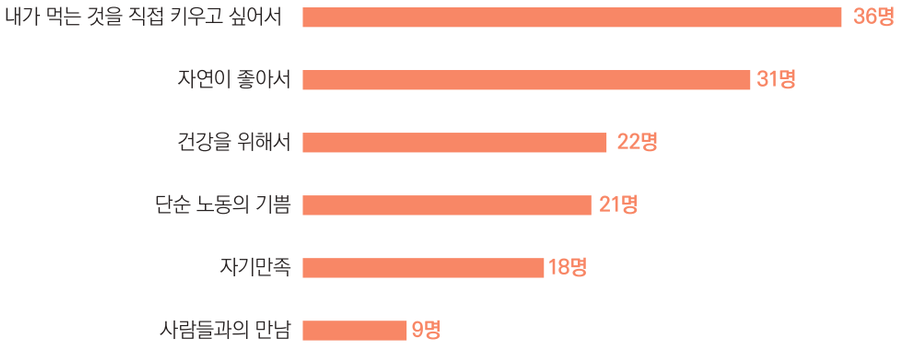
최00	30대 직장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김00	20대 직장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고00	20대 직장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정00	20대 직장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이00	30대 직장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문00	30대 직장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정00	30대 직장인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강00	20대 대학생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김00	10대 고등학생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고00	10대 고등학생	수확페스티벌 참여자
오00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 자문위원
임00	자문위원	센터 자문위원
유00	살림의료복지	센터 자문위원
주민참여		설문조사 참여인원 총 60명
이해관계자 및 참여주민 수		**총 82명**

○ '짓다'의 발견

함께 하는 텃밭 돌봄을 통한 자기 돌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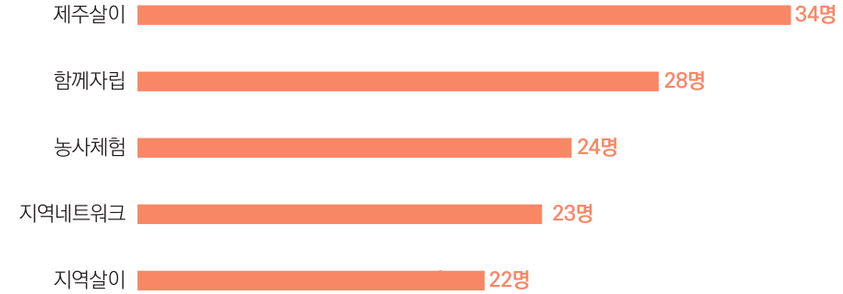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농사'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짓다'의 '텃밭 탐구생활: 소농로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농사는 힘들고 어려우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농사를 통해 서로 기대는 자급자족의 삶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으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농사, 단순 노동의 기쁨과 자기만족을 위한 농사 등 '농사짓는 행위'가 관계망을 확장하는 경험이자 자기 돌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생각나는 키워드는? (긍정적 키워드, 중복선택)



또한, '짓다'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의 관심사 중 많은 이들이 '자급자족'과 '제주 살이'와 같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 '함께 자립'과 '지역 살이', '지역네트워크'와 같이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다음은 본 프로그램(소농로드)과 관련한 주요 해시태그입니다. 이 중 관심 있는 단어는? (중복선택)





3) '짓다'의 탐구가 도출한 과제

○ 자기돌봄 텃밭 운영
- 자기만의 텃밭을 갖고 싶은 도내 청년들과 함께 자기 돌봄 텃밭 운영.
- 자기돌봄 텃밭을 통해 지역 내 네트워크와 안전한 관계망을 형성.

○ 체험 텃밭 운영
- 양육자 청년, 그리고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텃밭 운영.
- 세대 간 어울림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겐 언니와 형, 친구를 만들고, 양육자 청년들에겐 쉼과 관계망 형성을 제공.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은 서귀포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발달지연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달지연 및 장애인을 위한 언어·미술·음악·놀이치료 서비스, 아동·청소년·성인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접근성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1)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이 생각하는 '돌봄'

○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의 질문: 읍·면 지역에서 언어·미술·놀이·음악·심리상담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은 읍·면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 쉽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조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즐거운 사회

적협동조합'은 소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관계망(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이 돌봄을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돌봄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2)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의 탐구

○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한 방법과 만난 사람들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접근성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한 방법

구분	자료명/대상자명	선택이유 (확인하고자 한 지점)
설문조사	유·아동의 부모	실제 수혜자는 아동이지만 서비스 접근은 부모가 하기 때문에
인터뷰조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원장	부모와는 다른 관점으로 사회서비스 접근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문헌조사	장애인현황, 다른 지역의 사례, 논문 등	통계적으로 파악된 사회서비스 수요 수치 파악, 같은 문제를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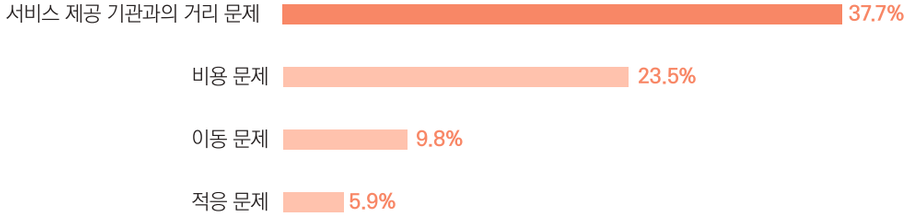
이름	소속	논의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대정,안덕,남원,표선,성산(17곳)	부모인식 개선의 필요성, 접근 방법,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송00	서귀포시 관련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설문 및 인터뷰 협조를 위한 방안 논의
사회복지사	읍면지역 사회복지사(5곳)	성인 대상자 발굴을 위한 협조 요청(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협조에 어려움을 있음을 보고함)
유·아동 부모 379명	설문조사 참여	사회서비스 접근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및 참여주민 수		**총 402명**

○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의 발견

사회서비스, 마음도 거리도 더 가깝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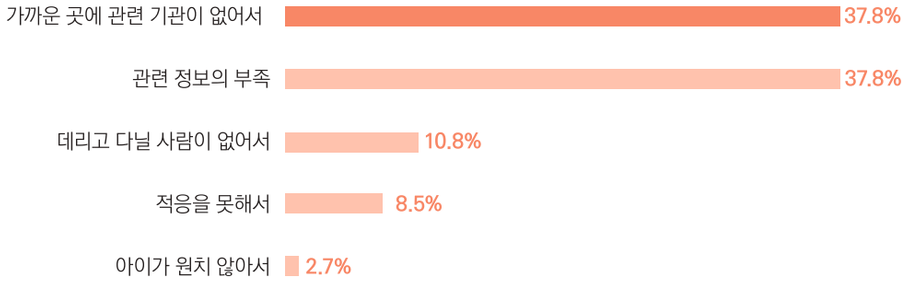
5개 읍·면 지역(대정, 안덕, 남원, 표선, 성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와 아동 부모 3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운 점은?



전체 응답자 중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4명(11.6%)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사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꼽은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거리 문제'(37.3%)였고, 비용 문제와 이동 문제, 적응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자녀에게 발달 문제가 있으나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 70.2%에 해당하는 266명은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자녀에게 발달 관련 문제가 있지만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22.2%였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가까운 곳에 관련 기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님들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동들이 생활하는 일상에서 발견된 발달 문제에 대해 언급했을 때 부모와 겪는 갈등 문제에 대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발달 문제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 교육 역시 중요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확장시켜야 할 중요한 사회서비스임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3)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의 탐구가 도출한 과제

○ 사회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및 심화검사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 부모대상 교육, 상담(대면교육, 동영상교육, 상담)
○ 희망 대상자에 한해서 시범 사회서비스 제공
○ 읍·면 지역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계 유지

㈜책여우

㈜책여우는 제주어와 제주문화를 '제주 어르신 그림책'과 '제주 문화 그림책'을 통해 아카이빙하고 이를 다른 지역과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80대 제주 어르신 작가와 그림책 활동가를 양성하고 공교육 제도 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교육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어르신 그림책 31종을 제작하였으며, 엽서와 달력, 연필, 노트 등 그림책과 관련된 기념품 역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여우는 그림책 창작 워크숍을 포함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1) '책여우'가 생각하는 '돌봄'

○ '책여우'의 질문: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동네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한 동네가 될 수 있을까?

㈜책여우의 구성원들은 '느나영'이라는 공동육아의 경험을 통해 한 어린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실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돌보는 경험이 마을에 축적될

때, 그 마을이 어린이에게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의 경험을 '느나영'의 활동 거점이기도 했던 노형초등학교 인근 마을로 확장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뤄지는 돌봄과 우리 동네 사각지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상인 등 동네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돌봄의 역할을 설득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 '책여우'의 탐구

○ '책여우'가 선택한 방법과 만난 사람들

책여우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책여우'가 선택한 방법

구분	자료명/대상자명	선택이유 (확인하고자 한 지점)
설문조사	노형초 인근 상가 및 학부모	사각지대 어린이 파악하기
설문조사	노형초 어린이	아이들의 돌봄실태 파악
간담회	노형초 엄마들	노형초 주변 사각지대 파악 그리고 안전한가?
캠페인	노형초 인근상가	혼자 다니거나 위험에 처한 아이들에게 노형초 인근 상가의 도움으로 안전한 동네 만들기
동화작가 어르신과 함께하는 서로돌봄	느나영공동체 어린이 및 설문대 어린이 도서 어린이들	동화 작가 어르신 작가와의 만남으로 동화 이야기,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돌봄의 진정한 의미 확인, 비즈니즈 모델 가능성 확인

• '책여우'가 만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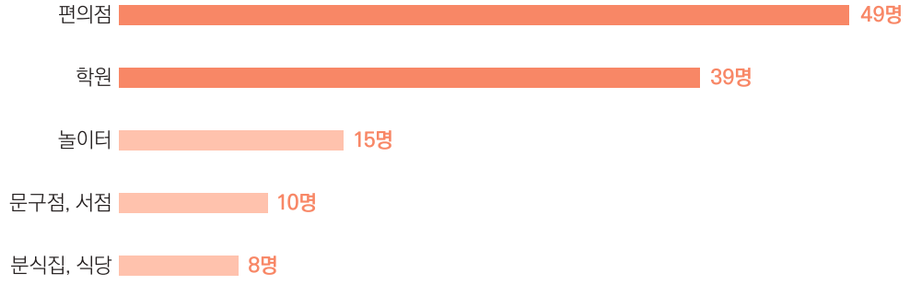
이름	소속	논의내용
고00	노형초등학교 학부모	노형초 학부모(10명)와 함께 사각지대의 위치와 필요한 돌봄의 형태에 관해 이야기 후 캠페인진행
안00	설문대어린이도서관 활동가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논의
이00	도의원	돌봄의 대한 이야기와 캠페인 참여
이00	노형동 상가 상인	돌봄의 취지 전달, 캠페인 참여
이해관계자 및 참여주민 수		**총 13명**

○ '책여우'의 발견

따뜻한 동네, 믿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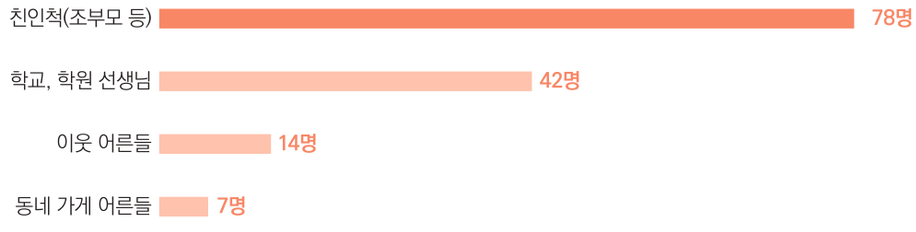
'책여우'는 노형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101명과 어른 107명(양육자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설문조사)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응답을 한 어린이 중 72명이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있었고, 하교(혹은 하원) 후 집으로 간다고 응답한 어린이가 44명, 학원으로 간다고 답한 어린이가 63명입니다. (하교(하원) 후 가는 곳에 대한 질문은 중복응답이 가능하였습니다.) 동네에 도움을 받기 편한 장소가 있는지 물은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가 '편의점'을 응답하였습니다. 학원은 그 뒤를 이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 동네에 도움을 받기 편한 장소 (중복 응답 가능)



설문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학교와 학원, 집을 오고 가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학교와 학원, 집을 연결하는 동선 상의 안전, 일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들은 자신의 동선에 위치한 편의점, 서점, 분식점과 같은 가게를 도움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가족 말고 믿을 수 있는 어른 (중복 응답 가능)



가족 말고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더 많아지는 것은 어린이들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동네 가게의 어른들, 이웃의 어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어린이들의 일상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책여우'는 설문을 통해 동네에 신뢰의 관계망이 확대될 때 만들어질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또똣한 동네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노형초등학교 인근의 상가들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마을'이 되어주길 부탁한 이유입니다.

마을의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돌봄

양육자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은 학원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양육자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작가들과의 그림책 활동을 경험한 어린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이는 사업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3) '책여우'의 탐구가 도출한 과제

○ 어르신 동화책 작가 수업 확대
- 공동육아 공동체를 넘어 노형초 어린이들에게 서비스 제공 확대

○ 동네에서 함께하는 놀이 활동 프로그램 개발
- 노형초등학교 인근 놀이터를 활용하여 놀이 활동 프로그램 진행

○ 우리동네 안전지대 MAP 만들기
-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긴급한 돌봄이 가능한 안전 상가 캠페인
- 캠페인을 통해 '우리동네 안전지대 MAP'을 제작하여 배포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조직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유부엌을 운영하고, 제주 향토요리교실과 어린이 요리교실을 진행합니다.



4. 사회적 협력으로 먹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1)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생각하는 '돌봄'

○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질문: 사회적 협력으로 먹거리 문제 해결 가능할까? 어떤 협력이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을 가능하게 할까?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존재하지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이고, 전체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주 일부만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단체가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찬과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먹거리 취약계층이 처한 식생활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가와 지방정부, 중간지원조직과 민간단체, 개인들이 연결된 협력의 관계망을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조건과 양상을 그려보기 위해 제주시 건입동과 일도2동을 중심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문제를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관계망을 구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의 탐구

○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한 방법과 만난 사람들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력으로 먹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한 방법

구분	자료명/대상자명	선택이유 (확인하고자 한 지점)
설문조사	건입동, 일도이동 주민	가까운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해 보고 확산의 정도를 논의할 수 있음
간담회2회	도시재생센터장 제주시니어클럽 사회적기업 대표	대상자발굴과 지역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실제협력방법을 연구하기 위함

•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난 사람들

이름	소속	논의내용
지역주민 100명	건입동, 일도이동 거주 주민	주거형태(자가/임차), 소득수준 등 경제적 지표와 별개로 식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일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김00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역 내 먹거리 돌봄의 필요한 분들이 있다. 적당한 비용만 제시하고 이분들에게 접근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김00	제주시니어클럽	돌봄의 대한 이야기와 캠페인 참여
조00	사회적기업 대표	식재료 소분하고 배달하는 일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제의하면 좋을 듯하다. 신선식품인 경우 과잉생산과 비상품으로 폐기되는 양이 많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및 참여주민 수		**총 130명**

○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발견

먹거리 돌봄, 지역사회 협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은 건입동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건입동, 일도이동 주민 50명을 만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입동과 일도이동은 1980~90년대 제주시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아파트가 들어섰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형성된 인구적인 특성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확장 및 개발 국면에 형성된 자가소유 중산층 위주의 거주민 특성은 노령화 추세와 맞물려 현재는 연금 등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저임금 소득 양상과 자가 중심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주거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조건과 별개로 식생활에 있어서는 다양한 먹거리 이슈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경제적인 지표와 분리된 먹거리 돌봄의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존의 먹거리를 둘러싼 복지 체계가 최저기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양질의 '충분한' 먹거리 돌봄이라는 것을 기존의 행정 중심의 복지 체계를 활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의 관계 안에서 확인한 것은 신선하고 건강한, 그래서 '충분한' 먹거리 돌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발췌]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문조사 분석보고서

• 경제적 상태인식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86.0%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적이 없었고, 경제 상태 인식은 보통 60%와 좋은 편 2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가주택 소유로 인해 주택주거비용이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인식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생활 현황인식

"식생활 현황인식 분석결과를 보면 식생활/급식서비스 수급경험은 대부분 없었으며, 식생활 형편에 대한 인식은 충분했지만 다양하지 않다고 여기며, 대체로 주당 2-3회 이상은 조리하고 이를 위해 주당 1회는 본인이 전통시장이나 인근 마트를 방문하여 주로 고기류와 채소, 생선, 과일류를 구매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과반수는 약 20-50만원의 식비를 지출하고 외식비는 5만 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식생활 서비스 제공인식

"소득 중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노인가구와 1인가구도 상대적으로 다핵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반찬류를 중심으로 식생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저항도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의 탐구가 도출한 과제

○ 반찬배달 사업

- 도시재생(건입동) 지역을 중심으로 먹거리 취약계층 참가자를 모집하고, 시중 가격 40~70% 수준으로 주 2~3회 정기적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반찬 및 식재료 공급

- 시니어클럽 등 지역사회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협력

[부록 1] 돌봄의 재구성 오픈포럼



상세 프로그램

주제강연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개념의 확장과 실천**	백영경 교수 (제주대 사회학과)
사례발표	생활응원 사례로 보는 지역기반 상호돌봄 서비스	고은주 이사장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자기돌봄, 서로돌봄, 함께돌봄으로 만드는 지역통합돌봄	유여원 이사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보호종료 아동의 돌봄, Stand On Your Feet	고대현 대표 (소이프_사회적기업)
토크콘서트	**제주에 필요한 '돌봄' 상상 토크콘서트 – 참여자가 꿈꾸는 새로운 돌봄 나누기**	진행 : 김경미 도의원



○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개념의 확장과 실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인터뷰 '언제나, 돌봄의 사계절-백영경 교수' 中]

'돌봄의 재구성 인사이트 포럼' 진행 후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진행한 백영경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싣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돌봄의 재구성' 인사이트 포럼에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야기되는 돌봄은 기존에 알던 개념보다 좀 더 확장되어 통용되는 듯한데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돌봄의 위기' 속에서 말하는 돌봄은 오히려 좁혀진 개념 같습니다. 자연이나 세상, 나를 돌본다는 등 일상적으로 쓰이는 돌봄의 범주는 상당히 넓잖아요. 요즘 회자되는 건 '돌봄 노동'에 집중하죠. 돌봄은 이제 구매 가능한 노동이 되었어요. 이슈가 되는 '돌봄의 사회화'는 특별한 노동을 가족(특히 여성)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게 상품화되어 사람들이 구매하는 방식을 이릅니다.

사실 돌봄은 항상 사회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뤄지는 까닭이죠.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 가사를 책임지는 노동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이 필요하듯 국가 존속을 위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을 포함하는 돌봄은 이뤄져 왔어요.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이윤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했고요. 예전엔 그저 여성의 일이라고 치부했지만, 지금은 남녀 모두 책임지려 하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 아래 현재의 돌봄은 특정한 방식으로 굳어져 있어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돌봄을 말하는 거죠.

/
누구나
우리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느끼는 돌봄의 시급성이 있는지요?

어디에서나 시급하죠. 이는 어느 지역에서 더 시급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돌봄의 행위는 상당히 로컬하잖아요. 지금 선 자리에서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에서 스스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해요. 이미 돌봄의 위기는 있었지만, 코로나19가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끊어놓아 더 악화된 상태에 놓였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서울에 있는 자식이 못 오기도 하고 제주 안에서도 못 만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자가격리할 상황에도 놓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늙어가고 아픈 사람은 생겨요. 이 팬데믹 시대엔 돌봄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남보다 안 좋아서 한다기보다 누구나 우리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돌봄이 정착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 구조가 갖춰져 있으면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 말이에요. 돌봄을 사회화하면 상품화밖에 방법이 없어요. 국가가 저렴한 노동을 구매해서 뿌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식물을 기르는 것만 해도, 물만 준다고 쑥쑥 크는 게 아니잖아요. 화분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인간적 돌봄은 그보다 더 구체적이란 거죠. 아이나 노인을 누군가에게 맡기면서도 왜 의심하겠어요? 개인으로서 취향을 존중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건 국가가 할 수 없죠. 실제 돌봄은 시민이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사회가 내 밖에 있듯 내가 사회의 일부란 걸 잊곤 해요. 시장에도, 국가에도, 심지어 여성이 주가 되는 가족에게조차 돌봄을 전담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남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
사실 돌봄은
항상 사회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뤄지는 까닭이죠



○ **제주에 필요한 돌봄 상상하기**

[제주에 필요한 '돌봄' 상상 토크콘서트 – 새로운 돌봄 나누기 中]

내가 생각하는 돌봄의 정의와 우리 조직이 생각하는 돌봄의 정의를 이야기해주세요.

고은주 돌봄은 동사다. 현장의 노동으로 완성되는 돌보다, 돌아보다 라는 관심의 표현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돌봄은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유여원 끝까지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가는 것. "남성노인 기저귀 케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여성이 노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 어떤 점에서는 위협과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고, 더 힘든 노동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있는 돌봄을 상세히 살펴보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현 돌봄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돌봄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 어릴 적 추억에 옆집에 가면 밥도 주고, 놀아도 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돌봄을 잘 하고 있다"는 기준은 무엇으로 생각하시고, 실제 사업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요?

고은주 지속되고 확장되는 것이 잘하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동료 집단인 우리의 경험상 어떻게 하면 개인화된 현장을 바꿀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돌봄을 하는 사람

/

지속적인

우리의 돌봄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으로

확장 되는 것

을 케어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측정은 못하지만 끝없는 사례를 이야기 하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새로운 시도로 변화 하려고 합니다.

유여원 지속가능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퀘백은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만 돌봄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 제도화 되어있어요. 캐나다 사람에게 물었을 때 거기서는 성과를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기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캐나다에서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주변인들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만큼은 공교육에서 필수로 배워야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돌봄은 없어요. 개인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돌봄이 좋은 돌봄입니다. 개인의 돌봄 취향을 알아봐야합니다. 또한 돌봄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봄을 주는 사람의 생명력도 같이 커지는지 중요하고, 꼭 보상과 연결 되어야 합니다. 이 노동의 사회적 인정, 경제적 보상, 교육의 성장 등이 필요합니다.

고대현 앞의 두 분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속하는 돌봄이 중요합니다. 항상 평가받는 사회적기업이다보니 회의감이 듭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취업을 시키고 퇴소하지만, 그 후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취업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우리의 돌봄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으로 확장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질문) 울림두레 협동조합에 질문합니다. 이용자의 모집이 어렵고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 적자사업의 위험이 큽니다. 적자 수습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틈새시장에 있어서 고용인들의 안정적인 근무시간 보장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은주 틈새시장은 사업성이 없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육성사업을 하며 진행합니다. 수익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나면 센터의 수수료는 매우 낮아요. 어떤 서비스는 사업화, 수익화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민의 기금으로 보충이 필요하고, 참여하는 응원단 선생님들이 함께 부담하고 있어요. 고용의 문제는 우리 조직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고용이 아니라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과 본인의 여유 시간에만 근로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소수라도 지속하려고 합니다.

(청중 질문) 자립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보호종료 아동이 센터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가졌을 때 ,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때 자립이라고 봅니다.

고대현 우린 자립의 개념을 정의했다가, 그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내렸습니다. 문제가 수천가지인데 개인별로 다른 상황을 정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본인이

/

측정은 못하지만

끝없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새로운 시도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꾸린다며 그 친구가 자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없기에 외로움에 노출되는데,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맞대는 가정을 이룬다면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이 왜 어렵냐면, 친구마다 문제도 시기도 다릅니다. 시기가 다르기에 한가지 잣대로 볼 수 없어서 정의 내리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청중 질문) 돌봄의 대상은 소수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문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보니 일상에서 모두가 돌봄이 필요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소통의 돌봄, 관계의 돌봄을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고 싶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타인을 돌보다가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실제 현장의 돌봄을 하는 사람들의 돌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여원 내가 절박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돌봄을 받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요양보호사의 건강이 좋게 유지되는가,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 일깨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양보호사는 24시간 요양보호사가 아닙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주민이라고 보고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묶어줍니다. 응급할 때 15분이면 달려오는 관계가 일상적 돌봄으로 깨어 있는 관계망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청중 질문) 작년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 가족이 힘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중증장애인 아이들이 갈 곳이 거의 없어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있어야 자생을 하는데 풀리지가 않습니다. 서울의 사례도 수익이 안 나서 다른 사업 통해 수익을 얻고, 돌봄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린 엄마들의 모임이라서 기술이 없어 어떻게 해쳐나갈지 모르겠습니다.



/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보니 일상에서 모두가 돌봄을 필요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발달 장애 돌봄은 부모가 가장 잘하는데, 돌봄을 수행하는 엄마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고은주 우리 지역에 발달장애 청년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어 지켜보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는 조언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자리가 그런 해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제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고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가 연대하여 발달장애인도 잘 지낼 수 있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텐데, 계속해서 돌봄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대현 수익성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시장의 피드백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조합원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끌고 올 수 있는 자원을 분석하고 발견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컨설팅도 받고, 조합원끼리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경쟁력을 찾아내주세요.

Ⅲ. 돌봄의 재구성

현장중심 사업화모델

제안연구 완료보고서

「돌봄의 재구성」 1단계 과정을 통해 제주 지역사회의 현안을 살피고, 돌봄에 대한 고민을 확장한 4개 기업은 1단계에서 설정한 고민을 심화시키는 2단계 시범사업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돌봄의 재구성」 2단계에 진입한 4개 기업은 새롭게 정의한 돌봄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화 모델을 도출해내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 ‘Ⅲ. 돌봄의 재구성’은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출한 ‘제주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의 재구성 : 현장중심 사업화 모델 제안 연구 완료보고서’’를 재구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청년들의 적극적 상호돌봄

1) '짓다'가 정의하는 돌봄

지역에서, 농사 기반으로, 자기 돌봄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의 기본 욕구는 '주체적이고 나다운 삶'을 실현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짓다'가 발견한 돌봄의 열쇳말은 '상호돌봄'입니다. '짓다'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오히려 '농사를 지으며 지역에서 자립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농사를 통해 '자급자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소통의 연결망을 확대해 적극적인 상호돌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며 지역으로,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돌봄 욕구와도 연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는 기존의 '돌봄 노동'의 영역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 시범사업 진행

짓다는 '청년들의 상호돌봄'을 열쇳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대상자 제주 로컬살이를 이제 막 시작한 청년

농사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청년

텃밭, 자급자족, 자립, 자기돌봄에 관심 있는 청년

② 사업모형

장기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창출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서 농사도 짓고, 문화도 짓고, 관계를 짓는 청년공동체 프로젝트 그룹 짓다가 마을 삼촌들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겨울을 함께 할 채소를 내 손으로 직접 길러서 먹고,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모집요강

대상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자기돌봄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도내외 청년 6팀 (친구와 함께, 아이와 함께, 혼자 모두 가능)

위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소농로드 농장에서

선발 신청서를 통한 선발 방식

기간 9월 ~ 2월

일정

날짜	텃밭활동	이야기주제	그리고
9.11(토)	텃밭 이름표 만들기 작물 계획 세우기	우리는 왜 여기에서 만났을까?	스타트박스 전달
9.25(토)	파종/물주기	농사, 뭣땜에 중헌디?	꼴라쥬 워크숍
10.9(토)	풀매기/새싹 비빔밥	외롭지 않을 권리	『외롭지 않을 권리』 저자 강연
10.23(토)	텃밭풍경 즐기기	일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간담회







단기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창출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아침에농부	명상형 휴식	피킹 피크닉 업체 '프루떼'와 협력하여 진행
월간도시락	지역살이 가능성 탐구	소셜 밋업 12회 진행
평대리가정식	아이와 함께, 먹거리 교육	제주 제철 산물로 함께 만드는 한끼 식사 (방역지침 상 문제로 잠정 연기)
구좌당근 미니텃밭 만들기 워크숍	텃밭돌봄을 통한 자기돌봄	집에 가서 직접 당근을 심고 길러 먹는 미니텃밭 만들기 (업싸이클 원가 문제로 잠정 중단)

③ 평가 (서비스평가 간담회 진행)

상호돌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

프로그램 참가자 "돌봄은 일반적으로 약한 자가 큰 존재에게 기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존재가 없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돌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물리적 지원이 돌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 돌봄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위로를 받고 동기부여가 되고 원동력을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견고한 하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돌보고 의지할 수 있는 지지대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퇴사를 결심했을 때 소속감을 느낄 수 없었는데, 소속감이 없더라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짓다와 함께 하면서 같은 방향성과 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가 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의지가 되고, 스스로도 돌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청년들의 적극적 상호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가자 "서로 돌보는 것이 짓다가 만든 사회적 농업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연대감, 소속감, 존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요.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확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 참가자 "좋았던 프로그램 중에 '외롭지 않을 권리' 저자 만남에 대한 호평이나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느낀 소속감, 그리고 실제 텃밭을 꾸리며 자연스레 연결되어 확인하게 되는 공동체의 구성 등이 어떻게 보면 앞선 고민이 부딪히고 또 동시에 그 고민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3) '짓다'의 구상 : 사업화 모델

○ 방향 : 농업 기반, 자립과 상호돌봄의 가능성

지역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돌봄은 적극적 상호돌봄이 가능한 일상의 조건을 확대해가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 사업화 가능성 점검

구상하고 실행한 사업모델에 대해 여러가지 관점에서 가능성을 점검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주요내용	가능성 점검
돌봄농장 운영	귀농귀촌 청년/장년	커뮤니티 형성/ 정보교류	B2G 모색(22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소셜밋업	로컬라이프 관심자	내가 그린 'local life' 꼴라쥬 워크숍 • 12회 진행/총 40여명 참여 • 참가비: 15,000원	툴킷 개발을 통한 진로교육 체험프로그램 진행 모색
		공동체 및 마을 투어 • 3회/ 총 30여명 참여 • 협력: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공정여행 / 착한여행 등 새로운 관광문화 연계하여 로컬투어 지속 진행 예정
칸트의 식탁	청년, 예비 청년	마을 인문학 커뮤니티	• 상표등록 중 • 플랫폼 사업 확장 가능성 점검

상호돌봄 마을공동체 — 공생공락共生共樂, 평대리 구상(중)

기존 공동체 운영 경험과 노하우 기반, 상호돌봄을 통해 마을의 교육 소외를 해소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상 중

협력기획	짓다 - 청년 (청년들의 성장 지원 및 지역 자립 기반 마련)
네트워크	마을 - 멘토 (마을의 지역 내 새로운 역할 수립 기반 마련)
사업대상	유·아동/ 청소년 (마을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핵심가치	생태, 소농, 마을, 놀이, 상호돌봄, 교육기회확대, 자립
사업공간	비자림길 '소농로드' (안정적 공간 기반, 법인 수익창출 기대)



4) '짓다'의 돌봄의 재구성

질문	농사는 자기돌봄이 될 수 있을까?
↓	
탐구활동의 발견	함께 하는 텃밭 돌봄과 자기돌봄이 필요하다!
↓	
돌봄의 재구성	상호돌봄 : 적극적인 상호돌봄을 통한 주체적인 삶 만들기
↓	
사업화 구상	네트워크 형성하는 장기 프로그램
	수익을 창출하는 단기 프로그램

2.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망

1)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이 정의하는 돌봄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닌 질문은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동하는 영역인 언어재활 및 심리·정서지원 부문의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중요한데요.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은 서귀포시의 읍면 지역에서 언어재활, 심리 및 정서지원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에 접근하고 있는지, 접근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을지 찾고자 하였습니다.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견한 돌봄의 열쇳말은 '찾아가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존의 사회서비스가 서비스의 대상자와 연결되는 방식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는' 경직된 방식이었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어린이집, 복지관 등)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찾아가고 연결되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돌봄의 공백을 채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 시범사업 진행

모두즐거운 협동조합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열쇳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대상자 1단계 과정 수행 중 진행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 (안덕면 32명, 대정읍 39명, 남원읍 47명, 표선면 132명, 성산읍 38명)

② 사업모형

프로그램	내용
부모교육	협력기관으로 강사 파견하여 교육 진행하거나 모두즐거운 센터로 방문하여 부모교육 진행
	양육태도, 언어발달을 주제로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도움
선별검사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선별검사 3종(언어발달 체크리스트, 부모 양육 스트레스, 아동 행동 평가척도) 실시 (문자 발송 후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선별검사지 전달)
	결과 상담은 센터 방문을 안내하거나, 전화로 진행
언어발달 및 예술프로그램 서비스	협력기관(성산일출도서관)에서 그룹 형태로 제공



③ 평가 (서비스평가 간담회 진행)

인식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 돌봄의 가능성

간담회 참가자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불안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받아야 하고 지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커졌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보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더라고요. 하나하나씩 배워가니까 그 안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고 좋았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불안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이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시기도 했는데, 오히려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찾는 분들도 생겼고요. 이제 저희가 시작했으니까 다른 어린이집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발달 장애와 관련한 선별 검사는 별로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상 어떤 아이가 발달 지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와서 아예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 사회 안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런 것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식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관계망을 형성할 때 부모교육으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더 참여를 하셔서요. 그런 방식의 네트워크 구축이 빠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서비스 접근성

간담회 참가자

"오히려 읍면 지역에서 (발달 지연, 발달 장애 관련해서) 더욱 소문이 안 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한다 할 때 마을 사람들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지 변할 것 같아요. 부모 뿐 아니라, 마을 구성원들이 같이 인식이 바뀌어야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을에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유소년 축구단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동료애가 생기기도 하고, 학년이 바뀌고 이사를 가도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끼리 그렇게 마을에서 똘똘 뭉쳐 있으면 인식도 바뀌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 클럽 같은 느낌으로요. 지역 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커갈 수 있게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프로그램 안으로도 들어오고요."

3)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상 : 사업화 모델

○ 방향 : 인식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험의 확대

- 다수의 사람이 요청한다면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읍면 지역에도 제공될 수 있을 것
- '왜 해야 하지?' 하는 질문이 '왜 안 했을까?' 하는 질문으로 변화

○ 사업화 가능성 점검

구상하고 실행한 사업모델에 대해 여러가지 관점에서 가능성을 점거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모델	내용	고민지점
부모교육/세미나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분기 혹은 반기별 교육 제공	• 온라인 교육과 대면교육 중에서 고민했으나 대면교육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 판단하고 진행 • 동영상 교육의 경우 이미 많은 내용이 노출되어 있고 집중이 쉽지 않아 대면의 접근이 더 좋았던 것으로 판단됨 • 교육 후 바로 궁금한 부분을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대면교육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선별검사	언어촉진 관련 선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검사 진행	• 문자와 협력기관을 통해 무료 선별검사 실시를 안내했으나 낮은 참여율이 나타남 • 우편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했으나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접근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언어촉진 및 문화예술 그룹 프로그램	관심을 보이는 협력기관과 함께 주 1~2회 진행(제남도서관과 2022년 1월부터 시작 예정)	



4)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의 돌봄의 재구성

질문	사회서비스 접근성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탐구활동의 발견	사회서비스, 마음도 거리도 더 가깝게!
돌봄의 재구성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 적극적인 연결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업화 구상	부모교육
	선별검사
	언어발달 및 예술 프로그램 서비스

3.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또똣한 동네'

1) '책여우'가 정의하는 돌봄

'책여우'는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충분히 행복하지도 않은 일상에서 돌봄의 공백을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일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책여우'가 발견한 돌봄의 열쇳말은 '따뜻한 동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의 풍경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식이 전달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돌봄의 장소이기도 한 학교의 여러 가지 기능이 사실상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어린이들의 일상 역시 변화했습니다. 학교 친구가 줄었고, 안전한 장소가 부족해졌습니다. 팬데믹은 공동체가 사라지고, 관계망은 옅어지는 우리 사회의 경향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여우'는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어린이들의 일상은 다름 아닌 '따뜻한 동네'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돌봄의 관계망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 시범사업 진행

책여우는 '안전하고 행복한 동네'를 열쇳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대상자

동네 아이들
동네 어른과 상인
제주 어르신 그림책 작가

② 사업모형

프로그램	진행자	내용
그림책 작가와의 돌봄	제주 어르신 그림책 작가	그림책을 읽고 작가와의 대화
		그림책 만들기와 그림책 전시회
동네 놀이	엄마 활동가	노형초등학교 인근 놀이터를 활용하여 전통 놀이 경험
주말 특별활동 에코 돌봄 프로그램	7~80대 제주 어르신 강사	옛 이야기 듣기 및 생활문화 체험
	엄마 활동가	역사 탐구생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활동가	자연생태 탐구생활



③ 평가 (서비스평가 간담회 진행)

여러 세대가 만나 형성하는 서로 돌봄의 가능성

간담회 양육자 참가자

"어르신 작가들과의 온라인 수업 경험 때문에 여기(간담회)에 왔습니다. 그 때 되게 울컥했어요. 학교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처럼, 학교에서 옛 이야기를 배우지만 우리는 과거와 너무 분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무언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경험이 생각나서 제가 오히려 그걸 갈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어르신 작가 참가자

"저는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하루 가는 것이 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도서관 추천을 받아서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도서관에 오니 동료 어르신들도 계셨고, 차츰 정화가 되고.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전혀 그려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지도 어려운 문제였는데 제일 자주 많이 보이는 한라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라산을 그리면서 보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더라고요. 오전에는 맑아서 항상 다 보였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깔려서 변색되는 것을 보면서, 자연을 통해 그 변화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삶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무를 그릴 때는 나무의 흔적을 보면서 나의 인생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건강도 되찾아지게 되고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참가자

"'서로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생각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어 사용이 제한적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라는 아이가 언어 발달이 잘 되지 않는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서로 돌봄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친구가 친구를 돌보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관계에 지역 어르신들과의 돌봄도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지트 만들기였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서로 돌봄'이 아닐까 싶어요."

간담회 어린이 참가자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진짜 제주어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번역해서 접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제주어를 바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여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에요. 책으로 본 그림과 컴퓨터로 본 그림이 달라서 그게 아쉬웠습니다."

3) '책여우'의 구상 : 사업화 모델

○ 방향 : 동네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 돌봄을 통해 연결되는 세대

- 인터넷, 핸드폰에 익숙하고 학원 친구들만 있는 아이들이 동네 놀이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동네 어른들, 상인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수눌음 육아
- 어르신 작가들은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아이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세대 연결의 돌봄

○ 사업화 가능성 점검

구상하고 실행한 사업모델에 대해 여러가지 관점에서 가능성을 점거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화 모델	주요내용	효과 분석 및 적정성과 가능성 점검
어르신 작가 만남 유료 서비스	1회 진행 / 총 40명 참여 비대면 온라인 수업	• 가족친화지원센터 등 홍보를 통한 유료 서비스 가능 •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육 가능
엄마 활동가와 함께 하는 동네 놀이	3회 진행 / 총 15명 참여 장소 : 노형초등학교 인근 놀이터	• 참가자 반응 매우 좋음 • 꾸준한 동네놀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유료 서비스 개발 가능성 있음 • 놀이터에서 동네 잔치 기획 • 엄마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인 동네 놀이 진행 • 놀이터 활용도를 높여 안전한 동네 만들기
주말 특별활동 에코 돌봄 프로그램	2회 진행 / 총 10명 참여 (어르신 작가 2명) 장소 : 애월읍 수산리 일대	• 어르신 작가의 그림책 배경이 되는 동네를 찾아가 동화책을 읽고 어르신과 동네 이야기를 나누는 기획으로 추진 • 제주 동네의 대한 역사를 어르신에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 동네 여행을 기획하면 상품 개발의 가능성 있음 • 어르신 작가와 함께 제주 동네 여행 기획
엄마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8회 진행 / 총 참여자 5명 '가온누리글샘' 그림책 활동가 양성과정	• 현재 유료 서비스로 엄마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진행 중 • 육아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 활동가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4) '책여우'의 돌봄의 재구성

질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탐구활동의 발견	따뜻한 동네, 믿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
돌봄의 재구성	'또똣한' 동네 : 더 건강한 관계의 확산으로 안전한 일상
사업화 구상	제주 어르신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엄마 활동가와 동네 놀이
	주말 특별활동 에코 돌봄 프로그램

4. 협력을 통한 먹거리 돌봄

1)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정의하는 돌봄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소득 저하,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증가 경향은 먹거리 취약계층을 늘리고 있습니다.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약자와 먹거리 취약계층이 사실상 일치할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1단계 탐구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먹거리 취약계층은 보다 넓은 영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화, 생활 방식, 관계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주거 형태나 소득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먹거리 문제의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화로 협동조합'은 먹거리와 돌봄의 문제를 연결시켜 통계와 지표가 보여주지 않는 돌봄의 공백에 직접 접근해보고자 이번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견한 돌봄의 열쇳말은 '협력'입니다. 민과 관의 협력, 지역 시민사회의 다층적인 협동의 관계망은 국가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 관심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먹거리를 중심에 둔 돌봄의 확장은 '협력'을 통한 돌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매우 적절한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시범사업 진행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력을 통한 먹거리 돌봄'을 열쇳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대상자 장애인 가구,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

② 사업모형

반찬 공급 시범 사업

기간	2021년 8월 ~ 10월
목표	자원연계 협력을 통해 공급단가를 시장가 대비 40~70% 실현 가능성 확인
내용	로컬푸드 공급 및 배송지원기관과 연계하여 반찬 제조 사업수행하고, 실제 투입 단가를 분석해 사업모델 구상
추진 방법	• 일도2동, 건입동 지역을 중심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모집 공고하여 20가구 선정 • 시중 가격으로 2만 원(2~3일 치) 상당의 반찬을 40~70% 총 8회차 공급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 실행 시 참여 여부 조사



③ 평가 (서비스평가 간담회 진행)

건강한 먹거리가 만들어내는 건강한 일상

간담회 참가자

"바빠서 밥 할 시간이 없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찬이 있으니까 밥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했죠. 주로 채소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린이들은 익숙해지기 힘든 반찬들이긴 했어요. 평소에 야채를 잘 안 먹는 어린이나 야채를 가리는 어린이에게는 좀 접근이 어려운 반찬이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개선이 된다면 아이들이 먹기 쉬운 반찬도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맛이어서 싱겁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배달을 하면 어떨까 저도 생각해보았어요. 우유 가방 같은 것 걸어두고, 직접 안 만나더라도 반찬을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취약 계층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먹거리 돌봄은 가능하다

간담회 참가자
(인화로 사회적 협동조합관계자)

"경제적인 것을 떠난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어요.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고,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제주 시니어클럽, 건입동 도시재생센터와 협업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총 8회에 걸쳐 스무가구에 시범적으로 반찬을 공급했고, '제주아이'와 협약해서 발달장애 가족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하면서도 저렴한 먹거리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3)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상 : 사업화 모델

○ 방향 : 지역사회 먹거리 기본권의 확대와 제주 음식의 가치 확장

-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변화 만들기
- 생산자, 소비자 등이 함께 먹거리 푸드 플랜을 통해 지역사회 먹거리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모델 구축
- 제주 전통 음식의 레시피로 만든 음식의 건강함을 바탕으로 한 사업화의 가능성을 확인
- 제주에서 직접 생산한 로컬푸드의 건강함을 지역주민이 확인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가능성 역시 확인

○ 사업화 가능성 점검

구상하고 실행한 사업모델에 대해 여러가지 관점에서 가능성을 점거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화 모델	반찬 공급 사업
내용	**사회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가격을 시중 가격의 60~70% 선에서 공급 가능성 확인** •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밥상살림'과 농산물 원재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육가공 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한 정육 원재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참여자의 시간, 노동의 참여를 통한 생산단가를 낮출 가능성 존재
효과 분석 및 적정성과 가능성 점검	**① 참여자의 설문조사 결과** • 참여자의 80% 이상이 모든 설문 문항에서 만족도를 나타냄 • 건강한 음식에 대한 마인드 재정립 및 높은 관심도를 나타냄 **② 참여자 간담회 결과** • 시범 제조 환경의 열악하여 전날 만든 음식에도 불구하고 재구매의 의지가 강했음 • 구매가격대도 25,000원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가격대와도 유사하여 수익성 확보 가능 **③ 기존 시장의 반찬 사업들과의 차별화** • 제주 로컬푸드 식자재와 조미료와 양념 베이스가 거의 없는 제주 향토 음식 레시피로 제조가 되어 기존 반찬 시장의 요리들과의 차별화로 제공하여 80% 이상의 만족도를 얻음 • 먹거리 취약계층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식단을 바탕으로 구독회원으로 운영을 하여 만족도와 재고 물량의 한계를 극복함 • 친환경 로컬푸드 잉여 농산물 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재료비 구매 단가를 낮추고 대상을 차별화하여 고객 확보 가능



4)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의 돌봄의 재구성

질문	사회적 협력으로 먹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	
탐구활동의 발견	먹거리 돌봄, 지역사회 협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
↓	
돌봄의 재구성	협력 : 지역의 협동의 관계망으로 먹거리 문제 해결
↓	
사업화 구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반찬 공급 사업

[부록 2] 돌봄의 재구성 2차 오픈포럼



상세 프로그램

주제강연	**농촌 마을과 농업**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대표)
토크콘서트	**새로운 돌봄을 시작하는 우리의 질문**	진행 : 김자경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을까?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내 아이, 다른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을까?	㈜책여우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살며,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농업회사법인 ㈜짓다
	읍면지역의 장애아동들도 멀지 않은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



○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 개념의 확장과 실천

[주제강의 '농촌 마을과 농업' – 정민철 대표]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은 서로가 사회에서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분리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럼 사회가 재구성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지역 사회, 로컬 사회로 진입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상호 발전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농장 일이라고 할 때, 지역사회의 일도 농장의 일의 부분이라고 포함시키는데, 사실 이러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 딱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냐면 주민들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회에 진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에 부역이라는 게 없었는데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입니다. 청년만 보고 돈을 떨어트려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장과 농업은 다른 이야기에요. 농장은 돈을 벌어야 하고 농업은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농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농업은 환경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하는 산업인데, 농민에게는 수확량을 신경 쓰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간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잘 몰랐는데, 2017년 쯤 되니까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를 소셜팜*social farm*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비상품적 관계가 늘고, 외상도 가능해지고 할 때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돌봄도 재구성이 되고, 농촌 사회의 시스템도 재구성됩니다. 공간을 볼 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보고 읍면을 보고 확장을 시키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새로운 돌봄을 시작하는 우리의 질문

[새로운 돌봄을 시작하는 우리의 질문 토크콘서트 中]

김자경(사회) 강연을 들으면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각자가 상호의존적 존재가 되는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 팀마다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왜 하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짓다 저희의 질문은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살며,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입니다.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에서 우리는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이 사업(돌봄의 재구성)에 참여할 때 부여 받은 미션은 2가지였습니다. 돌봄의 의미를 재정의 하는 것과 그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텃밭이라는 핑계로 혼자서 지역에 내려와 자리 잡으려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돌봄의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했습니다. 외롭지 않을 권리, 생활동반자법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농사는 나랑 맞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돌봄'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했지만, 우리가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이 떠났습니다. 한명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는 친구였고, 한 친구는 정착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자기를 더 적극적으로 불러주는 곳으로 갔습니다. 청년들이 소속감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저희의 질문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을까?' 입니다.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우리 질문의 시작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보통 분류하지만, 먹거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는 재료가 좋아야 하는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격부담에서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민관이 협력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참여자의 노동과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

역의 자원들, 로컬푸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 지역의 여러 소비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유기농 로컬푸드 식자재로 관행농 식자재 가격으로 운영하는 구상을 시범적으로 설계해서 참여했고,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참여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식회사 책여우 저희의 질문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내 아이, 다른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을까?'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았던 컨텐츠이기도 한데, 어르신 작가 양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육아 하는 엄마들이 주축이 돼서 돌봄의 재구성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진정한 사각지대가 어디일까요? 그런 친구들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동네 상가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따뜻한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놀이터가 비어 있는 곳이 많은데 그쪽이 더 스산합니다. 놀이터에서 동네 놀이를 할 수 있 따뜻한 동네 만들기를 고민했어요.

노형초등학교 엄마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형초등학교 엄마들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방과 후에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들도 공동육아, 서로 돌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캠페인은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주제였습니다. 노형초 인근의 상가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동네 아이가 갑자기 휴대폰이 필요하거나 갑자기 무서워서 들어오면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작가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줌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해보지는 않았는데, 비특정 대상에 대해서도 용기를 내서 놀이터에 가서 어르신 작가 수업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풀고 싶은 우리 질문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 저희의 질문은 '읍면지역의 장애아동들도 멀지 않은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 입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서비스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단계 때는 성인과 아동을 모두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말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가 해서.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아동 쪽으로 타겟을 집중했습니다. 1단계 설문조사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까운 거리에 센터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발달장애 관련한 정보가 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는 정보도 제공하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겹쳐서 일일이 대면하고 유치원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이 어려워서 동영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대면 교육으로 가자고 했는데, 집합 정지가 걸려서 잠시 쉬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교육 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사이즈가 커서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주민센터 방문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거나 정보를 요청할 때 공문을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다루는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Ⅳ. 돌봄의 미래

새로운 정의

다가올 미래

‘돌봄의 재구성’은 총 2단계의 사업을 통해 농업과 청년, 장애와 사회서비스, 마을과 아이, 먹거리 취약계층 이란 네 가지 사회 영역에서의 ‘돌봄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라는 사회인구적 조건 속에서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상호돌봄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돌봄의 재구성을 넘어 어떤 돌봄으로 나아가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 ‘Ⅳ. 돌봄의 미래’는 4개 사업 참여단위가 각기 정의한 새로운 돌봄 정의를 바탕으로 다가올 돌봄의 미래를 그려 보고자 합니다.

1. 함께, 서로 기대어 돌보는 실천

1) '짓다'가 생각하는 자기돌봄의 의미

'짓다'는 농업에 기반한 자립과 상호돌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기돌봄이 자기 안에서의 해결을 추구하고 오로지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바로서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짓다가 재구성한 돌봄은 각자 자신의 텃밭을 만들되 함께 가꾸고 이야기하며 홀로 돌보는 것이 아닌 사회 안에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지점에서 농업이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농사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에 가까웠다면 텃밭 돌봄은 좁게는 자급자족으로부터 소통과 대화를 지향하는 네트워크야 말로 자기돌봄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스로 일상 속 네트워크와 상호 돌봄의 씨앗이 되는 일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일이 서로 닮아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2) 적극적 상호돌봄을 지향하는 사회

함께 살고 함께 즐겁자는 공생공락(共生共樂)의 가치는 귀농귀촌 청년/장년에게 단순히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외롭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돌보는 적극적 상호돌봄을 지향합니다. 짓다가 시도했던 각종 워크숍과 돌봄농장의 운영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자 도전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돌봄농장의 운영 사례가 2022년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B2G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단기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 창출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와 같은 상호돌봄 프로그램의 필요함과 별개로 프로그램 자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지역에서의 자립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볼 수 있는 툴킷을 개발하여 수익 안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 향후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2. 보다 가깝게, 보다 자유롭게

1) '모두즐거운'이 바라본 읍·면 지역의 돌봄

'모두즐거운'은 제주생활탐구를 수행하며 실제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수혜자와 이를 신청 또는 접근해야 하는 대상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부모와는 다른 관점으로 사회서비스를 이해하기 때문인지, 나아가 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접근 가능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실제 거주하는 공간의 거리 문제, 비용 문제, 이동 문제, 적응 문제 순으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즉 가까운 지역에 관련 기관이 부재하고 실제 정보가 부족하여 접근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아이를 데리고 다닐 방법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은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역시 해당 서비스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건 "왜 해야 하지?"에서 "왜 안 했을까?"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높은 평가를 했다는 데서 사업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2) 사회서비스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돌봄

실제로 아무리 좋은 사회서비스도 이를 뒷받침할 구조적 조건과 지원이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 문제는 단순 홍보 차원 이상의 문제입니다. 특히 발달문제를 가진 아이들에게 적절한 심리·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은 발달문제에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 예술프로그램을 비롯한 발달촉진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간적으로 도시와 떨어진 읍·면 지역에서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서 더 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도시중심적인 사회서비스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돌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서비스망을 유지하는 구조와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보고 재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 바우처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과의 어떤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그렇습니다.

3. 또똣한 동네, 또똣한 돌봄

1) '책여우'가 꿈꾸는 동네·마을의 돌봄

'책여우'가 관심을 갖고 살펴본 곳은 다름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놀이터였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동네놀이의 영역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아이들의 돌봄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한 고민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제주도의 전통적인 수눌음 정신을 다시 돌아보고 "한 동네가 한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의 재구성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형 동네를 기반으로 사각지대나 우범지대를 살펴보고 동네 상가와 마을 어르신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을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려울 때 언제든 의지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감으로써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동네라는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 큰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7~80대 어르신 그림책 작가가 들려주는 제주의 전통과 문화, 역사 이야기는 아이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는 부모님까지 연결고리를 확장함으로써 또똣한 마을의 또똣한 돌봄이 단지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돌봄 그 자체가 가진 확장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2) 세대를 넘나드는 돌봄의 확장 가능성

아이와 어르신은 쉽게 돌봄의 대상으로 고착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여우의 사업을 통해 아이가 돌보는 행위가 있고 또 어르신이 돌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며 상호 돌봄과 확장의 가능성은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돌봄이 노형 동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놀이터에서의 놀이가 아닌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있어 부모의 돌봄으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간담회를 통해 나온 것은 돌봄의 재구성이 끝나지 않은 과제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엄마 활동가의 육아와 돌봄 노동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모를 가진 아이들과의 연결, 동네 놀이터로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남아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돌봄은 한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4. 새로운 협력, 그리고 새로운 미래

1) '인화로'가 상상하는 먹거리 돌봄

'인화로'는 사업초기 '건입동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의 노인가구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점, 그리고 주거 지출이 적은 데 비해 식생활에서의 영양관리와 반찬류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로컬 푸드 공급 및 배송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일도2동, 건입동 지역의 먹거리 취약계층을 모집하여 총 8회차의 반찬 공급을 진행하였는데요. 생드르, 제주향토음식보전연구원과의 협업과 MOU는 지역문화에 기반한 건강한 먹거리를 가능케 하였고 발달 장애 부모 단체인 제주아이와의 네트워크는 먹거리 공급 시스템의 평과와 과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여자의 80% 이상이 모든 설문 문항에서 만족도를 나타낸 점, 건강한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반찬 제공시 제공된 향토 음식 레시피와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지역사회의 먹거리 문제가 공동체 회복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점에서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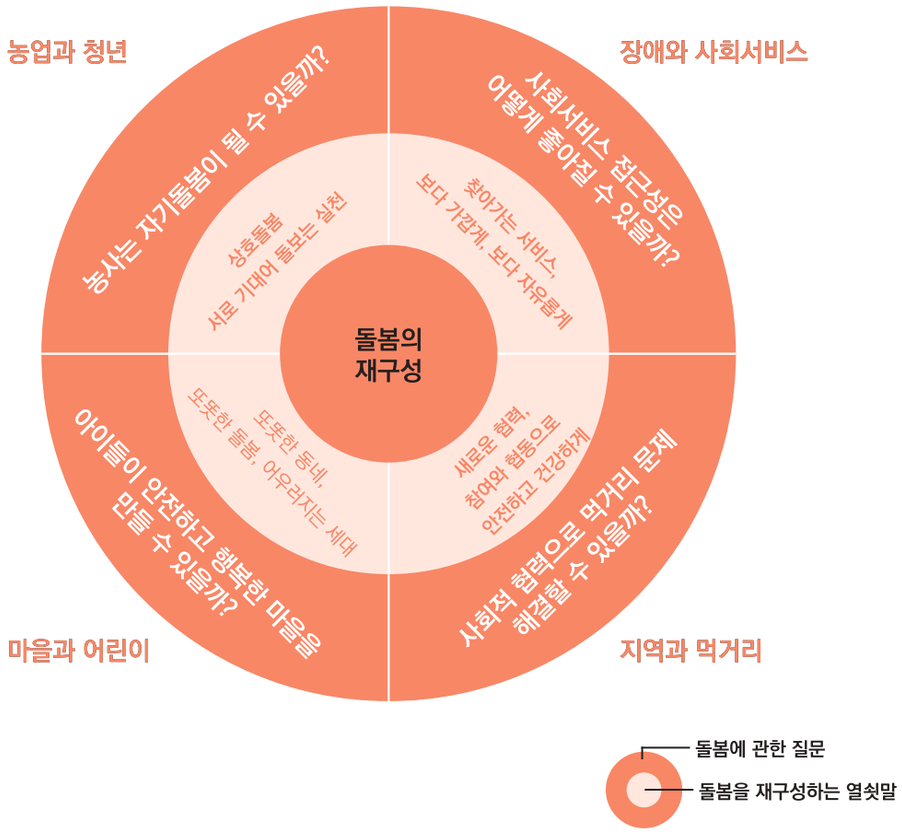
2)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

물론 기존 인스턴트, 배달음식과의 차별화된 음식에 낯설어 하는 사례와 더불어 좋은 반찬의 공급이란 측면을 넘어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실제 간담회에서 참여자가 반찬을 만들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소비자 이상의 역할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온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시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일은 결국 사회적 협력과 협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이와 같은 실천이 갖는 사회적 돌봄의 의미와 상호연결의 가치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웃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5.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한 제언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이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기존 돌봄 영역에서 배제된 대상을 찾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 그 자체의 의미를 되묻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공백을 채우는 과정은 돌봄 그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만큼이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조직관리 등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돌봄의 공공윤리*a public ethic of care*를 주장한 에바 키테이*Eva F. Kittay*는 모든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의존*inevitable dependency*을 겪는다고 말합니다[1]. 또한 돌봄은 돌봄 제공자에게는 돌봄 제공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그리고 돌봄 대상자에게는 수동적 존재가 되는 대상화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취약성을 안겨줍니다. 순수하게 '이타적'이면서도 노동의 성질을 갖는 돌봄은 그 자체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돌봄을 그저 사회 서비스의 차원에서 시장적인 접근으로만 보게 되면 돌봄의 이타성은 사라진 채 '끝없는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주된 이용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면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돌봄을 온전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돌봄이란 사회의 문제를 다시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여 그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말 것입니다.

돌봄은 개인이 처한 삶의 맥락과 특성을 고려해서 관심과 배려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줄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국가, 가족 어느 한 영역의 역할이나 중요성만을 강조해서는 그 상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적인 영역(국가),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의 영역,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돌봄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돌봄의 지속가능성만큼이나 돌봄을 요구하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고 돌봄의 미래만큼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성찰해야만 합니다. 돌봄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 김희강, 강문선 (2010). 돌봄의 공공윤리. 한국정치학회보, 44(4), 45-72

2021 제주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의 재구성
사업보고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시소통협력센터
글정리 이태영, 주현우
디자인 곧도착272

함께 하신 분들
모두즐거운 사회적협동조합, 인화로 사회적협동조합, ㈜짓다, ㈜책여우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이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기존 돌봄 영역에서 배제된 대상을 찾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 그 자체의 의미를 되묻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봄의 지속가능성만큼이나 돌봄을 요구하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고

돌봄의 미래만큼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성찰해야만 합니다.

돌봄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